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인가?

- 1장 질문① 군중 이것이 무엇인가?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인가? (27절)
 2장 질문② 서기관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질문③ 서기관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7절)
 질문④ 서기관들 어찌하여 그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6절)
 질문⑤ 바리새인들 저희가 어찌 불법적인 일을 하는가? (24절)
 4장 질문⑥ 제자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41절)
 6장 질문⑦ 고향사람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2절)
 7장 질문⑧ 바리새인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전대로 살지 않는가? (5절)
 8장 답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29절)

예수님의 사명

- 8장 수난예고 ① (31절)
 9장 수난예고 ② (31절)
 10장 수난예고 ③ (33-34절)

예수님의 사명 성취

- 11-12장 수난, 십자가, 부활
 13-16장

* 막 10:38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 막 11:9-10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10 3번째 I
마가복음 9-12장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실수록 오히려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숨겨질 수도, 숨길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7:36).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속내는 모두 달랐습니다.

메시아 비밀 messianic secret ②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

오해 ① 예수님께 무지했던 사람들 : “순례자들 중 한 사람이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합니다 (11:9-12). 호산나는 본래 ‘구원 하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시118:25-26).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함께 ‘호산나’를 외치는 전통을 지키면서 이후에는 단순히 구호처럼 쓰이게 됩니다.

특히 유월절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벳바게나 베다니 주민들은 순례자들을 맞으며 ‘호산나’로 환영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일부는 예수님을 그저 순례자 중 하나로 알았습니다. 순례자로 알고 ‘호산나’ 인사를 건넨 예수님이 정말 그 말을 받아 행하실만한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 ② 예수님의 제자들 : “드디어 그분의 때, 나의 때가 왔다!”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11:2).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생각에 제자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한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 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슥9:9).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면 내 자리는 어디쯤일지 그려보며 들떠있었습니다(삼하7:10-17).

오해 ③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들 : “이번에는 진짜일까? ”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약 190년 전의 일입니다.

헬라의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폭압을 일삼을 때,
유다 마카비란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은 성공했습니다.
마카비 형제와 독립군이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때를 기억했습니다.

로마제국을 무너뜨릴 새로운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생각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70년까지 메시아로 칭송된 사람만 8명이

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살인자이든, 강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 냉담히 돌아서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10:38).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여도,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 두란노 How, IVP BST, 성서유니온 LABC, WBC,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세상을 바꾼 24시간 참고